

# 와카, 일본전통언어문화 텍스트로서의 가능성

남 이 숙\*

(e-mail : ysnam@kunsan.ac.kr)

##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
| 2. 본론                       | 2.3 우타마쿠라(歌枕)의 전통성과 창조성         |
| 2.1 일본문화자립의 증거로서의 와카        | 2.4 혼카도리(本歌取り)를 통해 본 와카 언어의 전통성 |
| 2.2 와카를 와카답게 하는 형식미의 전통과 계승 | 3. 나가기                          |

キーワード : 和歌(Waka), 形式(pattern), 歌枕(Utamakura), 本歌取り(Honkadori) 伝統(tradition) 創造(creation)

## 1. 들어가기

고전을 왜 배우고 가르치는가? 한 개인의 경험은 일생을 통해 매우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경험과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려면 고전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고전은 현재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힌트가 되며, 현대문화와 현대문학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문학을 대하다 보면 표면상으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근대와 고전 사이에 문예적 문화적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수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와카는 5·7·5·7·7의 음수율을 가진 전통시가로 일본의 고전문학과 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단카라는 이름으로 일간지에 꾸준히 발표되는

\* 군산대학교, 교수, 일본고전문학

생명력이 아주 긴 문학장르이다. 일본의 가장 짧은 시로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하이쿠 역시 이에서 파생된 단시의 한 형태이다. 와카의 생명력이 이처럼 긴 배경에는 일찍이 자국의 언어로 노래하는 와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와카는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적 분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헤이안 시대에는 구중궁궐이나 귀족집안의 여성들이 와카를 매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우타아와세라는 와카 창작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솜씨를 겨루기도 하였다. 이후 와카는 자신의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미의식, 자연관, 세계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와카는 일본문화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일본의 전통을 이해하는 문화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에 걸쳐 일본인들이 읊은 와카를 음미하다 보면 와카에서 연유한 언어전통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언어문화의 전통성은 와카의 양식화된 형식미, 우타마쿠라(歌枕), 혼카도리(本歌取り)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번 논고에서는 와카가 일본문학사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와카의 형식미·우타마쿠라·혼카도리 등을 중심으로 와카 언어전통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나아가 와카가 전통언어텍스트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2. 본론

### 2.1. 일본문화자립의 증거로서의 와카

와카의 언어전통에 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와카가 일본문학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와카는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5·7·5·7·7의 31음으로 된 정형시이다. 광의의 와카와 협의의 와카로 나뉘는데 광의의 경우 5·7·5·7·7로 읊어진 정형시 모두를 지칭하는 말로 『萬葉集』에 실려 있는 노래까지 포함한다. 협의의 와카는 『古今和歌集』의 서문에서 와카의 개념을 야마토우타로 정의한 이후의 5·7·5·7·7의 정형시를 말한다. 『古事記』와 『萬葉集』에서도 일본인들은 5·7이나 7·5조의 음률로 된 노래를 많이

을었지만, 당시는 중국이나 한국에 대항의식을 가지고 야마토우타라고 칭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헤이안 시대 초기만 해도 국풍 암흑시대라고 하여 중국의 한시가 귀족 남성들 사이에 유행하여 와카는 쇠퇴일로에 있었다. 중국의 唐風 찬미의 시대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古今和歌集』 仮名序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와카의 명맥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今の世の中、色につき、人の心、花になりけるより、あだなる歌、はかなきことのみいでくれれば色好みの家に埋もれ木の、人しれぬこととなりて、まめなるところには、花すすき穂にいだすべきことにもあらずなりたり。1)

지금 세상은 너무 요란하여 사람 마음 또한 들떠 있으니 내용이 변변치 못한 노래, 한심스런 노래만 불린다. 호색한들의 집에 파묻혀 있는 나무처럼 식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공식적인 자리에는 나오지도 못하니 참역세의 이삭만도 못하다.

한시에 자리를 내준 와카는 사적인 자리, 즉 남녀 간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연애하려면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했으므로 여성은 물론 남성도 사적인 장소에서는 와카를 읊어야만 했다. 이는 아리와라노 나리히라(825~880)를 주인공으로 하는 『伊勢物語』나 『古今和歌集』 등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와카를 자국문화의 자립의 증거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古今和歌集』가집을 편찬한 의도를 적은 가나로 된 서문, 즉 仮名序에서 찾아볼 수 있다. 仮名序는 고킨슈 편찬자 중의 한 사람인 기노 쓰라유키(紀貫之)가 작성한 글로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やまと歌は、人の心を種として、よろづの言の葉とぞなれりける。世の中にある人、事業しげきものなれば、心に思ふことを見るもの聞くものにつけて、言ひいだせるなり。花に鳴くうぐひす、水に住むかはづの聲を聞けば、生きとし生けるもの、いづれか歌をよまざりける。力をも入れずして天地を動かし、目に見えぬ鬼神をもあはれと思はせ、男女のなかをもやはらげ、猛きものものふの心をもなぐさむるは歌なり。この歌天地の開け始まりける時よりいできにり。2)

1) 小沢正夫·松田成穂 校注·訳 (1994) 『古今和歌集』, 小学館, p.22.

와카는 사람의 마음을 씨앗으로 삼아 그것을 각양각색의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아가기에 그 때마다 생각하는 것을 보는 것 듣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게 된다. 꽃에서 우는 피꼬리 물에 사는 개구리소리를 듣노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물 중 어느 것 하나 노래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힘들이지 않고 천지를 움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까지도 감격하게 하고 남녀 사이를 부드럽게 하고 거친 무사의 마음까지 위로하는 것이 와카이다.

위의 인용문은 천황의 어명으로 편찬된 최초의 가집인 『古今和歌集』 假名序의 첫 단락의 문장이다. 첫 문장에서 와카를 ‘야まと歌’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秋山虔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러 중국 한시를 의식하여 자국의 시는 카라우타가 아니라 와카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사용한 단어<sup>3)</sup>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 문장에서 와카의 본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세상에 살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마음에 떠오르는 것 듣고 보는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한다. 이것이 노래이다. 꽃에서 우는 피꼬리, 물에 사는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 자연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 중 그 어느 것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노래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설파한다. 이어 와카의 효용은 ‘힘들이지 않고도 천지를 움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조차도 감격하게 하며 남녀 간의 사이를 부드럽게 하고 거친 무사의 마음까지도 위로하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와카의 기원에 관해서는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열렸던 때부터 즉 천지가 시작되었을 무렵부터’라고 하며, 천상에서는 시타테루히메(下照姬)<sup>4)</sup>로부터 지상에서는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尊)로부터 일어났다고 하고 있다. 나아가 와카는 나라의 통치기반이 되었다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히토마로는 이미 죽었지만 그의 노래는 남아있는 것 아닌가. 비록 시대가 바뀌고 옛일은 지나가고 즐거움과 슬픔이 엇갈린다 하여도 노래는 영원히 남으리라. …중략…와카의 진정한 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달을 보는 것처럼 옛날을 우러러보고 현재를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sup>5)</sup>’고 맺고 있다. 가인은 죽었지만 노래는 영원하고, 진정한 문학의 길을 목

2) 1)의 책 p.17.

3) 藤平春男 責任編輯(1993) 『和歌の本質と表現』, 勉誠社, p.15 참조.

4) 지상세계 지배자인 오쿠니누시(大國主)의 여자.

표로 삼는 이는 선인이 부른 옛 노래를 중시할 것이며 와카를 모아 펴낸 『古今和歌集』 시대를 동경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와카의 본질과 효용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假名序의 본문을 길게 인용했는데, 그 까닭인즉 와카의 위상을 논할 때 이보다 설득력 있는 문장이 없다고 생각해서이다.

진정 『古今和歌集』 편찬자들은 ‘와카는 한시와 달리 일본문화자립의 증거이다. 와카는 일본인의 마음이나 감동을 표현한 것으로 주술적 힘을 가지고 있는 신성한 언어이다. 이런 언어이기 때문에 신들의 시대부터 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문학의 진정한 길을 얻기 위해서 옛 와카를 중시해야 한다’ 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와카가 일본문화 전통의 근간이 될 것임을 미리 예견하고 이런 서문을 공표했을 것이다.

이러한 예견은 크게 빛나가지 않았다. 민족 심성의 표현으로 자각된 와카는 겐지모노가타리에 큰 영향을 끼치고, 무로마치시대까지 칙찬와카집을 계속 편찬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고킨슈의 전통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여러 계층으로 확산되어 일본의 서정, 자연을 감상하고 사생하는 렌가와 하이쿠와 같은 시를 탄생시켰다. 남북조이래 궁궐행사나 정월 초 우타카이하지메의 의례에서도 와카를 창작해 발표하는 행사는 계속 행해지고 있다. 지금도 5·7·5·7·7의 단카라는 형식으로 관련잡지가 500여종 발간되고 있으며, 주요일간지의 상설 단카란에 많은 작가들이 투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6)

## 2.2. 와카를 와카답게 하는 형식미의 전통과 계승

와카(和歌)를 와카답게 하는 것은 5·7·5·7·7의 음수율로 31자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전통시가 시조가 45자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단시형이다.

가장 오래된 가집인 『万葉集』의 경우 형식에 따라 短歌·片歌·旋頭歌·長歌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短歌는 5·7·5·7·7, 片歌는 5·7·7, 旋頭歌 5·7·7·5·7·7, 장가는 5·7·5·7·5·7...을 계속 반복한다. 『古今和歌集』에 이르면 총 1100수 중에서 長歌와 旋頭歌 10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短歌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시기 단가가 일본전통시가의 유일한 형식으로 고정되었다. 이후, 칙찬집에 수록되어 있는 와카도 『古今和歌集』를 따르고 있다.

5) 1)의 책 p.30.

6) 3)의 책 pp.10-18 참조.

그렇다면 5·7·5·7·7의 단시형의 와카가 전통시가를 대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伊勢物語』 124단에 ‘옛날 한 남자가 무슨 일을 생각하던 때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노래를 읊었다(むかし男、いかなりけることを思ひける折りにか、詠める)’고 하며 아래 노래를 읊는 장면이 있다.<sup>7)</sup>

思ふこといはでぞただにやみぬべき我とひとしき人なければ

사모하는 맘 말 못한 채 말 수 없다 나와 같은 심정을 가진 이 또 없기에

억누를 수 없는 감정과 한탄을 냇두리처럼 쏟아낼 때 남자는 5·7·5·7·7의 음수율을 사용하고 있다. 노래의 내용은 절박하나 전혀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 견딜 수 없는 연심으로 사무치는 감정을 소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형식이 와카가 된 것이다. 절박한 심정이나 감동은 와카 이외의 형식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좋은 예가 아닐까 한다.

앞 장의 와카의 효용 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와카는 산문세계의 일반적인 호소를 훨씬 초월한 주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면은 일기문학이나 다른 모노가타리문학 등에서도 얼마든지 확인가능하다.<sup>8)</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효험이나 효용을 인정받게 된 와카는 산문의 언어를 다 동원해도 표현할 수 없는 한계를 돌파하게 되었고, 일본인들은 이러한 표현형식을 즐겨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출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 시문학사에서 이러한 와카의 형식이 줄곧 향유되었던 것만은 아니다. 카마쿠라(鎌倉)시대 이후 와카의 형식을 향유하면서도 약간의 변화를 시도한 렌가(連歌)형식이 등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렌가는 가마쿠라 이후 발생한 운문형식으로 복수의 사람들이 5·7·5구와 7·7구를 계속 길게 이어가는 초렌가(長連歌)를 말한다.

두 사람이唱和하는 5·7·5와 7·7의 음수율로 읊는 원시적 형태의 단렌가(短連歌)는 『万葉集』 시대에도 존재했다. 卷8의 1635번 노래를 보면 비구니스님이 먼저 ‘사호강물을 다 막아놓은 후에 심은 밭에서(佐保川の水を堰きあげて植ゑし田を)’라고 읊자, 오토모노 야카모치(大伴家持)가 ‘거둔 쌀로 지은 밥 혼자서 먹네(刈れる初飯はひとりなるべし)’라고 받고 있다. 평범한 일상대화를 5·7·5와 7·7

7) 中野幸一 訳注(1990) 『伊勢物語』, 旺文社, 1990. p.206.

8) 秋山虔(1987) 「源氏物語と源氏物語繪巻の間」 『王朝文学空間』 東京大学出版部 p.252 참조

의 증답의 형식으로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노래는 헤이안시대 여흥으로 율어졌으나 내용이 유희적이고 해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렌가의 전성기인 중세에 이르러 복수의 사람이 모여 백 구를 읊는 하쿠인(百韻)이 기본이 되었다. 백 구나 되는 장대한 렌가는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순차적으로 창작하여 완성해 가는데 제일 첫구인 훗쿠(発句)를 제외하고 작품전체의 질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에쿠(前句)와 자신의 구와의 관계만 신경 쓰면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뒤에 읊어지는 구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작품세계가 전개되어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점이 매력이었다.<sup>9)</sup>

하지만 백 구나 되는 노래를 이어가다 보면 같은 발상이나 이미지, 심지어는 같은 소재나 어구가 반복되기도 한다. 이러한 무질서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칙과 질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시키모쿠(式目)이다.<sup>10)</sup>

이러한 물을 지켜 완성된 렌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인 『水無瀬三吟』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렌가이론 및 실제 작품활동에 많은 업적을 남긴 소기(宗祇)가 제자 쇼하쿠(肖柏)·소초(宗長)와 함께 고토바인(後鳥羽院)의 미나세궁에 봉납하기 위해 읊은 하쿠인(百韻)이다.<sup>11)</sup>

- 1.雪ながら山本かすむ夕べかな 宗祇  
잔설 있으나 산기슭에 안개 낀 석양이로구나
- 2.行く水とほく梅にほふさと 肖柏  
아득히 물 흐르고 매향 감도는 마을 肖柏
- 3.川風に一むら柳春見えて 宗長  
강바람으로 버드나무 사이에 봄이 보이고 ...후략...

이런 식으로 복수의 사람들이 모여 백 구까지 읊어가는 것이다. 겨울에서 초봄으로 이어지는 계절의 변화가 섬세하고 격조 높게 묘사되어 있다.

무로마치시대에는 렌가가 크게 유행하면서 첫구(発句) 5·7·5를 따로 독립시켜 하나의 작품으로 창작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렌가의 첫 구인 권두구는 독립된 시의 형태로 시가 읊어진 장소와 배경 시간 등을 읊게 되어 있는데 이

9) 최충희 지음(2014) 『렌가라는 문학과 소기』 인문과교양 pp.20-21 참조.

10) 9)의 책 p.26 참조.

11) 9)의 책 pp.36-37.

것이 나중에 하이카이(俳諧)가 된다. 오늘날 일본의 대표적 단형시로 누구나 한 수쯤 읊는다는 하이쿠(俳句)가 그것이다. 하이쿠에 항상 계절을 나타내는 기고(季語)나 기레지(切字)가 필요한데, 이는 렌가에서 만들어진 룰이다. 하이쿠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굳건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와카의 영향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에 이르러 무사지배 체제 안에서 초닌(町人)층의 경제력이 강해지고 문화창조 역량이 갖추어지자 이전의 음수율을 답습하여 그들의 웃음과 문화를 대변하는 교카(狂歌)나 센류(川柳)와 같은 해학적 단시의 장르도 등장한다.

교카(狂歌)의 형식은 전통 와카와 똑같은 5·7·5·7·7의 31음절이다. 하지만 내용은 전통와카와 달리 골계와 해학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世の中は色と酒とがかたきなりどうぞ敵にめぐりあいたい(大田蜀山人<sup>12)</sup>)

이 세상은 주색과 술이 적이지 제발 그 적과 만나고 싶다

上からは明治だなどといふけれど治明(おさまるめい)と下からは読む<sup>13)</sup>

위로부터 읽으면 메이지라 하지만 끝에서 읽어 가면 밝음을 다스린다가 된다

고전와카는 음식이나 술, 돈, 사랑노래라 할지라도 노골적인 성 묘사 등은 터부시해 소재로 삼지 않았다. 사실, 헤이안시대에도 교카라는 용어는 사용되어 교카를 읊은 가인들도 있었으나 와카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에도시대에 이르러 서민들의 힘이 강해지자 그들의 욕망이나 감성 표현을 제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센류(川柳)는 렌가와 달리 먼저 7·7의 前句를 제목으로 내걸고 거기에 어울리는 5·7·5의 付句를 생각해내는 언어유희에서 발전했다.

きりたくもありきりたくもなし (前句)

ぬす人をとらへてみれば我が子なり (付句)

자르고 싶기도 하고 싶지 않기도 하다

도둑을 잡고 보니 우리아이네

이와 같이 반복하다 보니 제목으로 내건 7·7의 前句는 의미가 없어 결국 5·7·5의 付句만이 독립해 단시형의 장르를 이루게 된 것이다. 하이쿠와 같은 형

12) 1749~1823년에 활동한 에도후기의 狂歌師이며 劇作家.

출처 <https://xn--u9j228h2jmngbv0k.com/2018/09/%E7%8B%82%E6%AD%8C/> (검색일:2019.09.08.)

13) <https://xn--u9j228h2jmngbv0k.com/2018/09/%E7%8B%82%E6%AD%8C/> (검색일:2019.09.08.)



식이지만 계절을 나타내는 가어인 기고(季語)와 기레지(切字)의 제한 같은 것이 없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주로 일상생활의 비근한 소재를 주제로 세태를 풍자하고, 경묘하고 기발한 표현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役人の子はにぎにぎをよくおぼえ  
관리의 아이는 (남의 걸 탐내는) 잼잼을 잘도 배웠구나  
捨てはるる親はやみから手を合はせ  
버린 부모는 남몰래 손을 모아 기도하고

5·7·5·7·7의 31음절로 이루어진 와카 형식은 렌가, 하이쿠, 교카, 센류 등 여러 갈래의 운문형식을 낳으며 현재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인 고유의 심성을 표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적인 와카는 근대에 이르러 자아를 토대로 한 감정이나 정서를 기본으로 하는 혁신운동에 의해 단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지만, 그 형식만큼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거기에서 분파된 단카, 하이쿠, 센류가단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면의 제한이 있으므로 현존 센류사이트를 예로 소개하면 「オタク川柳大賞発表！最新の“おもしろ川柳”特集」와 같은 자막이 뜨고 있다. 그리고 현 세태를 기발하고 재미있게 묘사하는 다음과 같은 센류가 소개되어 있다.<sup>14)</sup>

いい数字 出るまで測る 血圧計                                  ノー残業 趣味なし金なし 居場所なし  
좋은 수 나올 때까지 재는 혈압계                                  노 잔업 취미도 돈도 머물 곳도 없다

지금도 와카형식의 음수율은 속담, 표어, 포스터, 치라시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인들을 운율의 노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만큼 5·7·5와 7·7이 그들에게 편안하고 익숙하다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다루고 있는 줄고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sup>15)</sup>

### 2.3 우타마쿠라(歌枕)의 전통성과 창조성

우타마쿠라(歌枕)란 원래 노랫말 전반을 널리 지칭했지만, 헤이안시대 무렵

14) <https://news.infoseek.co.jp/feature/senryu/2019.9.8>  
15) 남이숙(2011) 「하이쿠·와카 운율을 통해 본 일본인의 언어생활」 『韓國日本文化學報』 49권, pp.165-186 참조

부터는 와카(和歌)에 자주 읊어진 명소나 오래된 유적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sup>16)</sup> 우타마쿠라(歌枕)는 『万葉集』나 칙찬에 의한 와카집 시리즈인 하치다이슈(八代集)에 나온 지명이 중심이다. 어떤 지명이 누군가에 의해 와카에 읊어지고 그것이 칙찬집에 실리게 되면 그 영향으로 다른 다수의 가인(歌人)들이 반복해서 같은 지명을 읊게 된다. 그러는 중에 그 지명에는 고유의 어떤 정서가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sup>17)</sup>

①2695吾妹子に逢ふ縁を無み駿河なる不二の高嶺の燃えつつかあらむ(万葉集)

사랑하는 님과 만날 방법이 없어 가슴은 후지산 정상처럼 계속 타오른다

②516思やる心はつねに通へども逢坂の関越えずもあるかな(後撰集)

님 향한 마음은 늘 통하지만 직접 만나 정을 나누는 시간은 갖지 못했네

①의 노래에서 후지산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으로 ②의 오우사카(逢坂)<sup>18)</sup>란 지명은 연인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로 읊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후지산은 늘 연기를 뿜고 있는 곳이 아니었고, 오우사카는 검문소가 설치된 곳이지 연인이 만나는 장소는 아니었다. 오우사카의 경우, 한자음 ‘만나다(逢う)’란 의미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연인을 만나는 곳이란 인식이 형성되어 갔다. 이처럼 후대에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와카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로 읊었다.

벚꽃이나 눈은 ‘요시노야마(吉野山)’ 단풍은 ‘타츠타야마(竜田山)’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는 경우라면 이름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스에노마츠야마(末の松山)’를 끌어들이 읊는 식으로 양식화되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와카에 의해 형성된 미적 이미지로 읊은 것이다. 이와 같은 식이었으므로 와카 작자들은 우타마쿠라에 관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했다. 따라서 우타마쿠라에 관한 관심은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자리잡게 된 우타마쿠라는 헤이안시대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면면히 이어진다. 근세 들어 하이카이 문학의 완성자로 불리는 마쓰오바쇼(松尾芭蕉;1644~1694)의 작품에 태고적이며 이국적인 우타마쿠라 지역을 동경하여 여행에 나서는 장면이 등장한다. 46세인 봄부터 가을까지 총 150여일간

16) 谷知子(2006), 『和歌文学の基礎知識』, 角川選書, p.101.

17) 関屋淳子(2011) 『和歌・歌枕で巡る日本の景勝地』, サンニチ, p.7.

18) 야마시로(山城)·오미(近江) 국경의 고개. 검문소가 설치된 곳으로 이곳을 넘으면 관동지방이었다. 만나다(逢ふ)란 의미를 포함하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어 헤이안시대 가인들이 노래로 많이 읊었다.

2400킬로에 이르는 동북지방과 호쿠리쿠지방의 여행이다. 이 여행을 토대로 쓴 책이 『오쿠노 호소미치(奥の細道)』<sup>19)</sup>이다. 이 책의 서문을 살펴보자.

세월은 영원한 여행자이고 가고 오는 시간 또한 여행자이다. 뱃사공으로 일생을 보내거나 말고삐를 잡고 늪어가는 사람은 매일 매일의 일상이 여행이고, 여행 그 자체를 거처로 삼는다. 옛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죽음을 맞이했다. 나는 어느 해인가부터 조각구름이 바람에 날리듯 방랑하고픈 마음이 끊이지 않았다. ...중략... 드디어 한 해가 저물어 새봄의 안개 낀 하늘을 오래전부터 관문 시라카와세키(白河関)를 넘고 싶은 마음이 떠나지 않아 여행 수호신인 도조신의 부름이라도 받은 듯 도대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후략...<sup>20)</sup>

서문을 참고하면 그는 여행하며 일생을 보내고 여행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영구불변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옛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고난의 여행길을 먼저 걸었던 두보와 사이고 시인과 같은 삶을 동경하였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 봄날 우타마쿠라의 메카로 옛 와카에 등장하는 미지의 변방, 시라카와세키(白河関)<sup>21)</sup>라는 우타마쿠라의 순례여행을 갈망하다 드디어 여행을 결심한다.

시라카와세키는 언제 생겼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네즈가세키(鼠ヶ関)나 나코소세키(勿来関)와 더불어 동북지역에 있는 세 개의 관문 중 하나이다. 교토(京都)에서 미치노쿠(陸奥)로 들어가는 도산도(東山道)의 요충지에 자리한 이 관문은 노인(能因)법사를 비롯한 많은 가인들의 노래에 등장하는 곳이기도 한다. 본문 중 시라카와세키(白河関)와 관련된 본문을 살펴보자.

心許なき日かず重るまゝに、白川の関にかゝりて旅心定めぬ。「いかで都へ\*」  
と便求しも断也。中にも此関は三関の一にして、風騷の人\*心をとくむ。秋風を  
耳に残し\*、紅葉を俤にして\*、青葉の梢猶あはれ\*也。卯の花の白妙に\*、茨の  
花の咲そひて、雪にもこゆる心地\*ぞする。

19) 오늘날까지 일본인에게 가장 인기있는 고전으로 근세 일본기행문학 최고의 걸작으로 꼽힘.

20) 일본고전독회편(2013) 『공간으로 읽는 일본고전문학』, 제이앤씨, p.359 번역문 참조.

21) ‘白川関’라고도 표기.

막연한 불안감에 싸여 여행을 계속하던 중 시라카와세키에 이르러 겨우 여행을 떠나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옛날 다이라노 가네모리가 이 관문을 넘으며 감회를 어떻게든 교토에 알리고 싶어서 인편을 찾는 노래를 교토에 알리고 싶어서 인편을 찾는 노래를 남겼을 때의 기분도 공감이다. 가네모리처럼 예도에 남기고 온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감명 깊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 시라카와세키는 오슈의 세 개 관문 중 하나로 많은 풍류객이 감회를 남긴 곳이다. 그러한 와카의 옛 이야기가 무엇보다도 먼저 떠오르고 그 유명한 노인법사가 읊은 가을 바람소리가 귓가에 들려오고 요리마사가 읊은 단풍으로 물든 경치를 떠올리며 눈앞에 펼쳐지는 푸르른 가지를 올려다보니 한층 감회가 새롭다. 옛 시가에도 읊어진 병꽃이 하얗게 피어있는 곳에 하얀 찔레꽃이 피어 있어, 마치 옛 시가에 나오는 설경 속 관문을 넘어가는 듯한 기분이 든다.<sup>22)</sup>

한국어 번역문이 훨씬 길어졌는데 그 이유는 바쇼가 쓴 인용문 \*부분에 아래와 같은 선인들의 와카 구절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과 연관이 있는 노래를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다음과 같다.<sup>23)</sup>

339たよりあらばいかで都へ告げやらむけふ白河の関は越えぬと(拾遺集, 平兼盛)

인편있으면 어떻게든 교토로 소식 전할텐데 오늘 시라카와세키를 넘었다고  
518都をば霞と共に立ちしかど秋風ぞ吹く白河の関(後拾遺集, 能因法師)

교토를 안개 자욱한 봄에 떠나왔는데 가을바람 부는구나 시라카와세키  
142見て過ぐる人しなければ卯の花のさける垣根や白河の関(千載集, 季通)

보고 지나가는 사람 없는 병꽃 피어 있는 울타리로구나 시라카와세키  
543東路も年も末にやなりぬらむ雪ふりにける白川の関(千載集, 印性)

365都にはまだ青葉にてみしかども紅葉散りしく白河の関(千載集, 源頼政)

교토에서 아직 푸른 잎을 보며 떠났는데 단풍이 지는 시라카와세키

앞서간 가인들이 부른 노래 속에 등장하는 아즈마 끝자락에 자리한 우타마쿠라인 시라카와세키를 고생을 각오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옛 노래들을 음미하며 이 글을 작성한 것이다. 특히 우타마쿠라를 편찬한 이로 오랫동안 존

22) 위 18)의 책 p.365 번역문 참조.

23) 이하 심사자의 지적에 따라 ( )안에 출처와 작자명을 병기함.

경해 온 노인법사(能因法師)<sup>24</sup>가 읊은 노래 ‘내 살던 고향 교토를 봄안개가 필 때 떠나왔는데 가을바람이 부는구나’ 란 노래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곳인 시라카와의 관문을 넘을 때는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우타마쿠라에서 훌륭한 가인들이 와카를 읊고 후세의 가인이 선인의 시심을 반추하며 노래 속에서 읊는 지명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시적 이미지를 동반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심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바쇼의 여행은 고인들의 시심을 확인하는 우타마쿠라의 순례여행이었다. 그러한 곳에 새겨져 있는 시심의 전통을 이해하고 하이카이라는 문학에 창조적인 에너지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바쇼가 방문한 시기는 초여름으로 하얀 병꽃과 짙레꽃이 피어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러한 풍경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옛 선인들이 와카에 등장하는 가을바람, 단풍 그리고 눈 내리는 풍경을 떠올리며 관문을 통과했던 가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몰입하고 있다.

그런데 바쇼는 오쿠노호소미치 여행을 그냥 여행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다. 우타마쿠라의 범주를 넘어 새로 하이카이명소인 하이마쿠라(俳枕)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의 여행기에 적고 있는 ‘야마가타(山形) 지역을 지날 때, 사람들이 가볼만한 곳이라 해서 류샤쿠지(立石寺)로 가는데 해가 저물 무렵이었다. 바위가 첩첩이 쌓여 산을 이루고 소나무와 떡갈나무가 무성하고 흙과 돌도 오래 되어 이끼가 끼어 있고 바위 위에 지은 암자는 모두 문이 닫혀 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란 부분을 참고하면 山寺인 류샤쿠지를 통과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바쇼는 그의 대표작인 다음의 하이쿠를 읊게 된다.

513閑さや岩にしみ入蟬の声(松尾芭蕉集)

고요함이여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 울음소리

이 하이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초안은 ‘山寺や石にしみつ蟬の声’이었고, 그 후 ‘さびしさや岩にしみ込む蟬の声’ (『初蟬·泊船集』) 으로 되었다가 다시 퇴고를 해서 위의 하이쿠가 되었다고 한다.<sup>25</sup> 그래서 여기에서는 초안에 담겨 있는 ‘야마데라(山寺)’ 란 하이마쿠라가 탄생한다. 이즈모사키에서 읊었다고 전해지는 다음 하이쿠도 새로운 하이마쿠라를 탄생시킨 유명한 노래

24) 우타마쿠라를 정리해 『能因歌枕』란 책을 펴냄.

25) 井本農一·掘信夫 (1995) 『松尾芭蕉集』, 小学館, p.267.

이다.

534 荒海や佐渡に横たふ天河(松尾芭蕉集)

거친 바다여 사도 섬에 드리운 은하수

이 하이쿠와 함께 ‘칠월이로다 칠석 전 옛새 밤 평소와 다르네(文月矢 6 日も常の夜に似ず)’ 라고 읊은 것을 보면 음력으로 칠월칠석을 앞둔 날 서해안의 거친 파도 위로 밤하늘의 은하수가 사도섬으로 길게 드리운 장관을 읊은 것이라 생각된다. 사도섬은 준토쿠인(順徳院; 1198~1242)을 비롯해 가마쿠라 니치렌종파의 창시자 니치렌(日蓮; 1222~1282), 무로마치 시대 노가쿠(能楽)을 완성한 제아미(世阿弥)가 유배당한 슬픈 역사를 담고 있는 곳으로 바쇼가 활약 하던 시대는 유배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한밤중에 넓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사도섬을 바라보며 유배당한 이와 본토에 남겨진 이들이 견우와 직녀처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은하수를 보았을 것이다. 여기서도 ‘佐渡ヶ島’ 라는 하이마쿠라가 탄생한다.<sup>26)</sup>

그렇다면 현대 일본에서는 우타마쿠라와 하이마쿠라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을까. 먼저 우타마쿠라에 주목하여 보면 『和歌・歌枕で巡る日本の景勝地』와 같은 책자가 단행본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歌枕로 남아있는 여행지를 돌아보며 그곳에서의 느낌을 수필 형식으로 적고 와카를 창작해 발표하는 독자를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sup>27)</sup> 梅内美華子氏가 펴낸 『現代歌枕 歌が生まれる場所』와 같은 단행본을 통해서도 계속 새로운 歌枕가 창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이마쿠라(俳枕)의 경우도 명소로 알려진 곳을 픽업하여 해당지역의 역사와 지명의 유래, 불만한 곳을 해설하는 『新歳時記』 시리즈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28)</sup> 고전문학을 음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예가 재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현재 전국각지에 있는 우타마쿠라나 하이마쿠라는 관광명소로 알려져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와카와 하이쿠를 활

26) 19)의 책, pp.368-369 참조.

27) <http://www.fubaisha.com/tanka-vs/top.cgi?mode=read&year=2006&month=3&day=29> 2019.10.05.

[http://www.asahi-net.or.jp/~sg2h-ymst/yamatouta/utamaku/siraseki\\_u.html](http://www.asahi-net.or.jp/~sg2h-ymst/yamatouta/utamaku/siraseki_u.html) (검색일:2019.10.05.)

<http://mikiya.com/2015/07/05/shirakawa-no-seki/> (검색일:2019.10.05.)

28) [http://www.kawade.co.jp/np/search\\_result.html?ser\\_id=60380](http://www.kawade.co.jp/np/search_result.html?ser_id=60380) (검색일:2019.10.05.)

용한 지역상품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기도 한다.

## 2.4 혼카도리(本歌取り)를 통해 본 와카언어의 전통성

혼카도리란 와카(和歌) 표현기교의 하나로, 옛 노래의 일부(용어·어구) 또는 발상을 의식적으로 자신의 와카 작품에 인용 또는 내포시키는 기법을 말한다. 와카는 31음절밖에 안 된다. 31음절로 창의성이 풍부한 작품을 계속 읊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 또한 자신이 읊는 와카에 풍부한 내용을 담으려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그 중의 한 방법이 혼카도리이다. 예를 들면, 후지와라노 순제이(藤原俊成)의 다음 노래,

238たれかまた花たちばなに思ひ出でん我も昔の人となりなば (新古今集)

5월 굴꽃 향기를 맡으면 누가 나를 옛 사람으로 생각해줄까

『古今和歌集』의 혼카(本歌)인 ‘5월 굴꽃 향기를 맡으면 옛 님의 소매에서 나뉠 향기가 생각난다(さつきまつ花たちばなの香をかげば昔の人の袖の香りぞする)’의 이미지를 능숙하게 이용하며 ‘내가 잊히는 존재가 되면 누가 나를 생각해줄지’ 하는 인간세상의 무상감을 표현해 내고 있다.

다음의 순제이의 아들인 후지와라노 데이카(藤原定家)의 다음 노래도 혼카도리의 대표작으로 자주 거론된다.

32春の夜の夢の浮橋とだえて峰にわかるる横雲の空 (新古今集)

봄밤 꿈길 끊겨 잠을 깨니 새벽하늘에 가로 흐른 구름이 봉우리에서 떠나네

‘봄날 새벽’이란 제목 하에 읊은 노래이다. 두 번째 구의 ‘꿈의 다리(夢の浮橋)’란 우리말로 번역하면 꿈길이 가장 적합하다. 심정은 전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으나 뭔가 회화적이면서 냉랭한 허무감이 풍기는 분위기이다. 노래의 속뜻은 분명하지 않다. 이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혼카를 알아야 한다. 혼카는 『古今和歌集』의 미부노 다다미네(壬生忠峯)의 다음 노래를 인용해 읊은 것이다.

601風ふけば峰にわかるる白雲のたえてつれなき君か心か (古今集)

바람불면 정상에서 흰 구름 양쪽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그렇겠조

테이카의 노래는 다다미네의 노래 ‘峰にわかるる白雲のたえて’의 구절과 중복되고 있다. ‘산 정상에서 갈라져가는 구름이 양쪽으로 흩어진다’고 해석되는 이 구절은 자신과 임의 사랑이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비유하고 있으므로 테이카의 ‘峰にわかるる横雲’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다미네의 노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읊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까지 노래 속에 담아내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테이카의 노래는 봄밤 꿈길 끊겼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함을 의미하며 그러한 상황은 마치 산 정상에서 양방향으로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순제이는 혼카도리기법을 즐겨 노래를 창작하고 ‘말은 옛것을 숭상하고 마음은 새로움을 추구해야 한다(ことばはふるきをしたい、心はあたらしきをもとめ)’<sup>29)</sup>라고 하며 이를 의식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작품을 모방해 읊는 혼카도리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표절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혼카도리는 표절과는 다르다. 표절의 경우 출전이 알려져서는 곤란하지만 혼카도리는 오히려 출전을 알지 못하면 곤란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오카 마코토씨는 이러한 혼카도리의 성격에 대해 ‘옛 노래를 한 구절 인용해 읊어 넣는 행위에 의해 오래된 전통을 실감나게 하는 시간의 지속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up>30)</sup> 나아가 ‘옛 와카를 답습하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와카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 예전의 가인들과 맞먹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sup>31)</sup>이라고도 지적한다. 위의 테이카의 노래도 그렇지만 혼카도리를 하는 창작자는 선행 가인의 노래가 갖는 미적 세계나 정취 등을 참고로 해 훨씬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시상의 작품을 만들어 내려고 힘썼을 것이다.

렌가의 대표작으로 앞에서 소개한 『水無瀬三吟』의 소기(宗祇)의 홋쿠 ‘잔설 있으나 산기슭에 안개 낀 석양이로다(雪ながら山本かすむ夕べかな)’ 역시 『新古今和歌集』에 실려 있는 고토바인(後鳥羽院)의 다음 노래를 혼카도리한 것이다.

29) 有吉保 외 7인 (1994) 『신코킨슈(新古今集)』 勉誠社 p.342.

30) 大岡信 (1995) 『あなたに語る日本文學史』 親書館, p.245.

31) 26) 위의 책 p.246.



36見渡せば山もとかすむ水無瀬川夕べは秋となに思ひけむ(新古今集)

바라보니 산기슭 안개낀 미나세강 저녁 가을이 멋지다고 여찌 생각지 않으리

황폐한 옛 격전지에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를 보고 읊었다는 바쇼의 유명한

夏草や兵共が夢の跡(松尾芭蕉集)

여름잡초여 무사들의 꿈이 사라진 흔적

이란 하이쿠에도 중국의 난세의 시인 두보(712~770) 春望의 첫구절 ‘나라는 망해도 산하는 그대로이고 성에 봄이 오니 초목이 무성하구나(国破山河在 城春草木深)’의 문구가 인용되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와카와 하이쿠에서뿐만 아니라 교카나 센류에서도 혼카도리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에도시대 朱楽菅江가 읊은 교카로 아래의 『古今和歌集』에 수록된 아베노 나카마로(阿倍仲磨)의 노래를 혼카도리한 것이다.

天の原月澄む空を真二つにふりわけみればちよど仲磨

높은 하늘에 빛나는 저 달을 딱 둘로 나누어 바로 나카마로의 그 달

天の原ふりさけみれば春日なる三笠の山に出でし月かも

높은 하늘 멀리 바라보니 가스가지방의 미카사산에 떠 있는 달이 보이는구나

다음 노래는 『古今和歌集』 仮名序에서 언급한 紀貫之의 「와카는 힘들이지 않고 천지를 움직인다(和歌は力をも入れず天地をも動かす)」라는 평을 패러디한 교카이다.

歌よみは下手こそよけれあめつちの動き出してたまるものかは (宿屋飯盛)

노래 읊는 이는 서투를수록 좋다 하늘과 땅이 흔들려서는 안 되니까

와카로 천지를 움직일 수 있다면 와카는 서투를수록 좋다고 유머러스하게 세태 풍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래들은 교카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의 1780년대 덴메이(天明)교카 중의 일부이다. 당시 사람들의 취향과 예민한 통찰력, 분방하고 자유로운 해학으로 고전을 패러디하며 세상을 풍자한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혼카도리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라 할 수 있다. 혼카도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로 원전이 되는 와카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

기 때문에 와카뿐만 아니라 옛날의 『古今和歌集』 이하의 勅撰集뿐만 아니라 『伊勢物語』 『源氏物語』 중국의 漢詩까지도 알고 있어야 했다. 이는 창작자뿐만 아니라 감상하는 측에 있는 감상자에게도 필요한 조건이었다. 만약 혼카도리의 和歌를 받아들인 사람이 그 本歌(古歌)를 모르고 있으면 노래의 뜻도 잘 모르지만 교양이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혼카도리는 이와 같이 선행와카가 역사를 축적해온 전통을 반영한 세련된 기법으로 현대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바로 앞에서 언급한 아베노 나카마로의 노래를 다음과 같이 패러디해 혼카도리 창작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있었다.<sup>32)</sup>

小夜更けて窓から見ゆる蒼光も遙か昔に出でし月かも  
 밤늦게 창문 통해 본 푸른빛은 먼 옛날 아베마로가 본 달일지도

그밖에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혼카도리를 소개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노래를 창작하는 모습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sup>33)</sup>

### 3. 나가기

이상, 와카의 본질과 위상에 대해 알아보고 그 형식미·우타마쿠라·혼카도리 등을 중심으로 이들 전통언어문화가 후대에 어떻게 계승되었으며 현대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았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와카는 현재 일본문학과 문화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다른 표현형식에 큰 영향을 주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5·7·5·7·7의 와카 형식은 여러 갈래의 운문 형식을 낳고, 일본인 고유의 심성을 표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현재의 일본인들의 언어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와카(和歌)로 읊어진 우타마쿠라는 바쇼와 같은 후배 시인들에게 문학

32) <https://ncode.syosetu.com/n5104cx/6/>(검색일:2019.09.18.)

33) <https://amanokakeru.hatenablog.jp/entry/>(검색일:2019.10.05.).

<https://ameblo.jp/moetatan-yuutatan/entry-12063623375.html>(검색일:2019.10.07.)

적 영감을 부여하고 하이마쿠라를 창시하게 하여 새로운 지역 문화를 창조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넷째, 혼카도리는 선행와카가 역사를 축적해온 내용을 반영한 고도로 세련된 기법으로 후대의 문학인들에게도 새로운 문학창조의 원천이 되고 있다.

고전은 고리타분하고 진부한 것이며 창조와는 상반된 것이라고 치부하기 쉬운데 와카의 언어전통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후대의 문학과 문화에 새로움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와카는 일본전통문화의 텍스트로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남이숙(2011) 「하이쿠·와카의 운율을 통해 본 일본인의 언어생활」 『韓國日本文化學報』 49권, pp.165-186.  
 (DOI: <http://dx.doi.org/10.21481/jbunka.49.201105.165>)

일본고전독회편(2013) 『공간으로 읽는 일본고전문학』, 제이앤씨, p.359 p.365 pp.368-369.

최충희 지음(2014) 『렌가라는 문학과 소기』, 인문과교양, pp.20-21 p.26 pp.36-37.

秋山虔(1987) 「源氏物語と源氏物語繪卷の間」 『王朝文学空間』, 東京大学出版部, p.252.

有吉保 외 7인 (1994) 『신코킨슈(新古今集)』, 勉誠社, p.342.

大岡信 (1995) 『あなたに語る日本文学史』, 親書館, pp. 245-246.

小沢正夫·松田成穂 校注·訳 (1994) 『古今和歌集』, 小学館, p.17 p.22 p.30.

中野幸一訳注, 『伊勢物語』, 旺文社, 1990. p.206.

藤平春男 責任編輯(1993) 『和歌の本質と表現』, 勉誠社, p.15.

関屋淳子(2011) 『和歌·歌枕で巡る日本の景勝地』, サンニチ, p.7.

谷知子(2006), 『和歌文学の基礎知識』, 角川選書, p.101.

<https://xn--u9j228h2jmgvbv0k.com/2018/09/%E7%8B%82%E6%AD%8C/>.(검색일:2019.09.08.)

<https://news.infoseek.co.jp/feature/senryu/>.(검색일:2019.09.08.)

<https://ncode.syosetu.com/n5104cx/6/>(검색일:2019.09.18.)

<https://amanokakeru.hatenablog.jp/entry/>.(검색일:2019.10.05.)

<https://ncode.syosetu.com/n5104cx/6/>(검색일:2019.09.18.)

<https://amanokakeru.hatenablog.jp/entry/>(검색일:2019.10.05.)

[http://www.kawade.co.jp/np/search\\_result.html?ser\\_id=60380/](http://www.kawade.co.jp/np/search_result.html?ser_id=60380/)(검색일:2019.10.05.)

논문 투고 일자 : 2019. 10. 13.
논문 심사 일자 : 2019. 11. 03.
게재 확정 일자 : 2019. 11. 06.

---

 <要旨>
 

---

## 和歌、日本伝統言語文化テキストとしての可能性

南二淑

本稿では、まず和歌の本質と位相について考えて見た。そして、和歌の形式美、歌枕、本歌取りなどを中心にこれらの伝統言語文化が後代にどのように継承され、現代文化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たかを考察し、和歌が伝統言語テキストとして活用できる可能性があるかについてみたのである。結果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になる。

第1に、和歌は現在日本文学と文化を支える根幹で、他の表現形式に大きな影響を与え、現代に至るまで日本文学の発展に大きく寄与した。

第二に、5・7・5・7・7の若形式は幾つの韻文形式を生んで、日本人固有の心性を表現するのに大きな役割をして現在の日本人の言語生活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

第三に、和歌で詠まれた歌枕は、芭蕉のような後輩の詩人に文学的靈感を与え、俳句を創始させ、新しい地域文化の創造に貢献している。

第四に、本歌取りは先行和歌の歴史を蓄積してきた内容を反映した古度に洗練された技法で、後代の文学者たちにも新しい文学創造の源泉となっている。

このような点で和歌は日本伝統文化のテキストとして十分に活用する価値があるといえる。

## Waka, its Possibility as a Text of Traditional Japanese Language Culture

Nam, Yi-Sug

In this article, we considered the nature and phases of Waka. We then looked at how these traditional language cultures were inherited by later generations and influenced modern culture, centering on the formalities of waka, utamakura, and Hongkadori.

Waka is the foundation of Japanese literature and culture, and has influenced other forms of expression, contributing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Japanese literature.

The Waka form of 5・7・5・7・7 has produced many rhyme forms and played a major role in expressing the spirit peculiar to the Japanese and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Japanese language.

Utamakura, written in waka, has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a new local culture by giving literary inspiration to younger poets such as bassou.

Hongkadori is an ancient and sophisticated technique that reflects the history of the antecedent Waka, and is also a source of new literature creation for later writers.

In this respect, it is worth utilizing Waka as a textbook for traditional Japanese culture.